

기도

1.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대로 걸어갔을 때 경험한 주님의 함께하심을 나눠주세요.
2.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몇몇 고대 종교들의 이야기에는 자연의 세력을 자유자재로 진압하는 존재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이 존재는 주로 신이었거나 고대의 초인적 영웅이었다. 유대인은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만이 자연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다. 종종 천사들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천사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라 여겼다. 예수님께서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에 대해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마가복음 4장 35-41절 (찬21장, 374장)

예수님께서서는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던 중에 큰 광풍이 몰아쳤고 배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평안히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부족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저 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말씀입니다(35-36절).

예수님께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35절).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될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깨달아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36절).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37-38절a).

예수님께서서는 광풍 가운데 배에 물이 가득 찼지만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37-38절a).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낮에 폭풍이 일어나고, 밤에는 잔잔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안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이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고난의 길로 가도록 두실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잠든 중에도 깨어 일어나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당한 은혜와 열린 길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우리의 실력이 쌓이고 깨달을 바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참된 평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광풍과 물결 가운데 있었습니다(37절).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서는 영의 세계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38절a). 이처럼 평안은 환경과 겉모습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광풍과 물결이 들이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낙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이 때에 우리는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감사가 넘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말씀입니다(38절b-41절).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38절b). 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39-40절). ‘무서워 하느냐’는 말씀은 왜 비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는 말씀은 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느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바다와 바람을 두려워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고백할 때마다 믿음의 능력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41절a). 이 ‘두려움’은 앞선 ‘무서워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달은 두려움입니다(41절b).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평안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때에 우리의 실력이 쌓이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이상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기고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